

장성군, 군민안전 최우선...하절기 종합대응 ‘만전’

28일까지 집중 현장점검 호우·강풍·폭염대책 확인

전라남도 장성군이 군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먼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호우·강풍대책 마련과 하절기 폭염에 따른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계공무원 10여명이 △장성호 제3출렁다리 △북하면 물통골폭포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호우·강풍·폭염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앞으로 청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첨단3지구 공

공폐수처리시설, 국립야열대작물실증센터 등 복지·산업·농업분야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는 관련부서와 공약·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화재 예방에도 나선다.

군은 9월까지 노후주택 등 80가구에 △소방시설 점검 △자동소화콘센트 교체 및 소화패치 설치 △노후전선 정리 △주택화재 예방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홀몸어르신, 암·치매환자 등 건강취약 주민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얼음주머니, 살충제, 파스 등으로 구성된 ‘여름살이 건강지킴 꾸러미’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소 방문보건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으로 구성된 ‘건강지킴이’를 운영해 가정이나 경로당에서 혈압



지난 15일 김한중 장성군수(왼쪽 두번째)가 장성호 제3출렁다리 현장 안전점검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혈당을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상담도 제공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건강과 안전이 군정 최우선 과제다”며 “안전 확보와

호우·강풍·폭염 대응, 군민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시설원에 농가 스마트팜 환경센서 지원

함수율 등 측정 장비 보급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15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시설원에 5개 농가에 환경정보 수집장비인 배지 함수율 센서를 설치·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장비는 농촌진흥기법사업의 일환으로 양액배제 시 배지의 함수율을 실시간 측정해 양액 공급량과 공급 간격을 한층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습도, 토양수분 등 온실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온실 환경의 최

적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오는 9월 중 신규 농업인과 기존 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집된 함수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고흥군,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참여자 모집

1인당 270만원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이 지역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가의 자생력 확보와 고수의 창출에 필요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 대한 초기 창업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11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의 18~49세 이하 청년창업가

다. 참여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를 거친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1인당 27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홍보 광고지 제작, 로고 및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401)으로 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영광군,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의사결정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은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의료·금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환자가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어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예금 자산 관리,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 14일 함평군 함평읍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찾아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함평읍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복지기동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며 맞춤형 복지 실현에 나섰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함평읍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방문해 집 안팎을 정비하고 안전한 주거 여건을 마련했다.

대상 가구는 집 안팎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아동이 거주하고 있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복지기동대원들은 현장을 찾아 청소와 방역, 수납 가구 설치 등 전반적인

환경을 정비하며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했다.

김영남 함평읍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화자함평읍장은 “복지기동대원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주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불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생 모집 광양시, 21일까지 신청·접수

전라남도 광양시가 ‘2025년도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 3기 사진촬영반·동영상촬영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준공된 창농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사진촬영반과 동영상촬영반으로 나뉘어 각각 운영된다.

사진 촬영반은 오는 8월5일부터 10월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동영상 촬영반은 8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각각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반은 12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광양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에 안내돼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참가자’ 모집 완도군, 최대 10만원 경비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은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전라남도의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2인으로 구성된 7팀 내외이며 참여자에게는 체류 기간 중 6박 7일 동안의 숙박비, 식비, 체험 활동비 등 하루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완도군에서 최소 7일 이상 여행하며 머무는 동안 경험한 완도 관광의 매력을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전남·광주광역시 거주자 제외)의 SNS 활용 능통자다.

군은 여행 작가, 유튜버, 파워 블로거 등 SNS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여행 후기 작성, 완도의 숨은 명소 소개 등 과제를 부여해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체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지의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관광 정책 피드백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28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관광실 상품개발팀(061-550-5432)으로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진정한 여행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살아보는 데 있다”며 “완도에서 체류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고 해양치유 중심지 완도의 숨은 매력을 널리 전파할 인플루언서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